

다자 차원의 감염병 지원과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이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이예림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yrlee@kiep.go.kr, Tel: 044-414-1068)



차 례

1. 배경
2. 다자기구의 감염병 지원 현황
3.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의체 논의
4. 시사점

주요 내용

-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 주요 글로벌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펀드를 중심으로 다자기구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바,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다자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는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으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함.
- ▶ 우리나라는 COVAX AMC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전체 기여금의 0.15%)에 불과한 수준인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기여가 필요함.

1.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넘어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의 필요함.

- 특정 국가의 방역이나 보건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감염병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 협의체(G20, 세계은행, CEPI, ACT-A 등)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6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보건 이슈가 주요 논의로 다루어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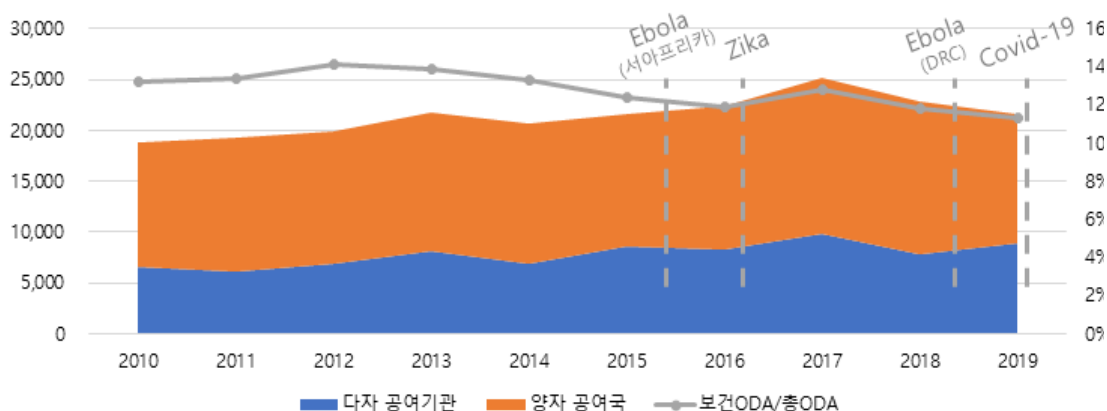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자원과 논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기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다자기구의 감염병 지원 현황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14억 달러 규모의 ODA를 보건분야에 지원해왔으며, 이는 전체 ODA의 12.7% 수준임.¹⁾

그림 1. 국제사회의 보건 ODA 지원 추이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주: 총지출, 2019 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1.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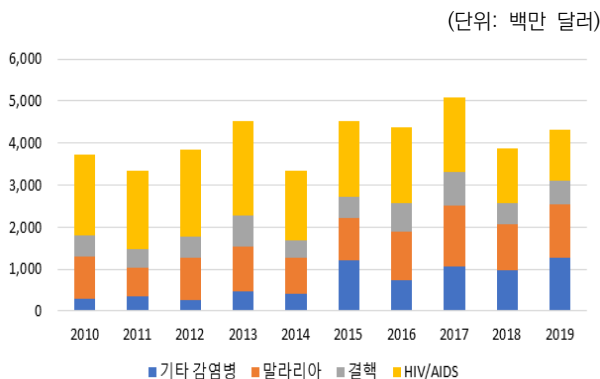
1) 본절의 보건분야 ODA 통계분류는 OECD DAC의 보건(CRS code 120) 및 인구정책·생식보건(CRS code 130) 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보고 주체는 29개 DAC 회원국과 21개 비회원국 및 다자기구임.

- 2019년 보건분야 ODA 지원 규모는 216억 9,324만 달러로, 주요 국제 보건 이슈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다소 존재
- 지원 주체는 양자공여국의 보건 ODA 지원 비중이 59%, 다자 공여기관이 약 41%를 차지하며, 최근 다자기구를 통한 ODA 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감염병 대응 ODA는 크게 말라리아, 결핵, HIV/AIDS 및 그 외 기타 감염병의 세부 분야로 구분하며, 2019년 다자기구의 감염병 대응 ODA 규모는 약 43억 달러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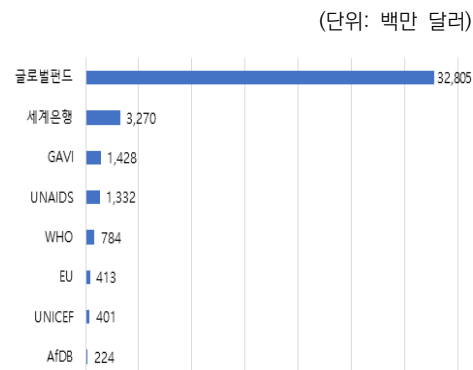
-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감염병 대응 ODA 중 HIV/AIDS 지원 비중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나,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이후 기타 감염병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함.
- 2019년 기준 다자기구의 감염병 대응 ODA는 말라리아(30%), 기타 감염병(29%), HIV/AIDS(28%), 결핵(13%) 순임.

그림 2. 다자기구의 감염병 대응 ODA 지원규모



주: 총지출, 2019 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1. 5. 28).

그림 3. 주요 다자기구의 감염병 대응 ODA 지원규모(2010~19년 누계)



주: 총지출, 2019 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1. 5. 28).

■ 감염병 대응 ODA를 주로 제공하는 다자기구는 글로벌펀드, 세계은행, GAVI, UNAIDS, WHO, EU 등임.

- 글로벌펀드는 2002년 개도국의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대응 관련 전염병 및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454억 달러를 모금함.
 - 2019년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제6차 재원보충 회의에서 공여국들은 향후 3년간 144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주요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임.
 - 글로벌펀드는 긴급 COVID-19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10억 달러를 공여하고, ACT-Accelerator의 설립 멤버이자 진단 및 보건 시스템 분야의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임.²⁾
- 세계은행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며, 보건분야에서는 특히 생식건강, 모성 및 신생아 건강, 백신 프로그램,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병을 지원함.

2) 글로벌펀드 홈페이지, <https://www.theglobalfund.org/en/replenishment/>(최종 검색일: 2021. 5. 28).

-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2019년 보건분야 개발원조로 약 122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³⁾ 이 중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된 ODA는 3억 7,041만 달러임.
- 세계은행은 COVID-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6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고,⁴⁾ 대표적인 감염병 대응 이니셔티브로서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PEF)'를 설립함.
- PEF 주요 공여국으로 일본, 독일, 호주가 참여하였으며, 64개 개발도상국에 약 1억 9,600만 달러의 보험금이 필수 의료장비와 개인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지원됨.
- GAVI는 최빈국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구임.
- GAVI의 주요 활동은 보건 시스템 강화, 백신, 콜드체인 장비 최적화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9년 주요 공여기구 및 국가는 빌&멜린다 파운데이션(4억 6,100만 달러), 미국(3억 7,000만 달러), 영국(3억 6,400만 달러), 노르웨이(1억 8,500만 달러) 등으로, 총 18억 달러를 약정함.⁵⁾
- 이 중 개도국의 개발목적 및 감염병 지원에 국한된 ODA는 약 13% 수준인 2억 3,459만 달러임.
- WHO는 국제연합 내에서 보건 이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는 특별기구로서 1948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보건분야 의제 설정과 정책대안 제시, 기술 제공 및 보건 동향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함.
- 2020년 기준 WHO의 향후 2년간 총 사업예산은 약 79억 달러로, 이 중 회원국이 납입하는 의무분담금은 1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을 야기함.
- WHO는 유엔과 공동으로 COVID-19 연대대응기금(Solidarity Response Fund)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17억 달러를 국제사회에 요청하였으나 15억 달러를 모금하는데 그침.⁶⁾

3.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의체 논의

가. G20

■ [브리즈번 정상회의]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이후 개최된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국제 보건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⁷⁾

-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비용 마련, 국제 보건체계의 혁신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금 지원을 약속함.
- 진단기기, 백신, 치료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소 및 제약회사의 노력을 촉구하고, 세계은행과 IMF의 강력한 재정 지원을 요구함.

3)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2020), "Financing Global Health 2019: Tracking Health Spending in a Time of Crisis," p. 120.

4)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4/27/pef-allocates-us195-million-to-more-than-60-low-income-countries-to-fight-covid-19>(최종 검색일: 2021. 5. 28).

5)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IHME)(2020), "Financing Global Health 2019: Tracking Health Spending in a Time of Crisis. Seattle, WA: IHME.

6) WHO(2021), "Looking Back at a Year that Changed the World: WHO's Response to Covid-19."

7) OECD, <https://www.oecd.org/g20/summits/brisbane/>(검색일: 2021. 5. 28).

- WHO 회원국이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하 IHR)을 준수해야 함을 피력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리아드 정상회의] 코로나19 발병 이후 G20 국가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제 보건협력의 혁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성명을 2020년에 발표함.⁸⁾

- ‘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이하 ACT-A)’와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하 COVAX)⁹⁾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함.
- 각 정부의 IHR 이행을 위한 WHO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유와 국가별 감염병 대응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함.
-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G20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 제도 개선 등 다자 차원의 향상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질병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로마 정상회의]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Global Health Summit)에서 G20 국가들은 미래의 보건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¹⁰⁾

- 보건 다자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역량 증진 △IHR 규범 준수 △보건안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국제 공급망 구축 △데이터 및 기술 공유 △재정 조달능력 향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자원 증대와 WHO 주도의 다자협력 채널(ACT-A)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나. ACT-A

■ ACT-A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레임워크로, 2020년 G20 국가들의 리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함.

- △감염병의 진단·치료 △백신 개발·보급 △보건시스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세운 전략이 WHO를 주축으로 실행됨(그림 4 참고).
- ACT-A는 2021년 주요 목표로 △최소 20억 명 분량 백신 보급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 생산 및 보급 △진단검사·치료·방역물품의 사용을 위한 국가역량 증대 △저·중소득국에서의 진단검사·치료·방역물품의 접근 확대를 제시함.¹¹⁾

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0. 11. 22), "G20 Riyadh Summit Leaders Declaration,"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how-the-ilo-works/multilateral-system/g20/leaders-summits/saudi-arabia/WCMS_761761/lang-en/index.htm/(검색일: 2021. 5. 28).

9)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COVAX) facility,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10) European Union(2021. 5. 21), "Global Health Summit," https://global-health-summit.europa.eu/rome-declaration_en//(검색일: 2021. 5. 28).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22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IMF의 분담금 부여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여국별 분담액을 산정하며 세부 계획을 수립·협의하고 있음.
-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순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사용의 목적은 주로 백신 개발·생산·보급이고, 사용 주체는 주로 GAVI나 감염병혁신연합(CEPI)임.
- 코로나19 확산을 제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백신 개발, 생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WHO 등 다른 국제보건기구와 마찬가지로 공여국에 자금 지원을 강요할 법적 구속력이 부족¹²⁾

그림 4. ACT-A의 구조와 협의체 구성



자료: WHO(2021. 4. 12), "What is the ACT Accelerator, how is it structured and how does it work?" 토대로 저자 번역.

다. CEPI

■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이후 2017년에 설립된 감염병혁신연합(이하 CEPI)¹³⁾은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된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의 개발·생산·공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노르웨이와 빌게이츠 재단 등 국가와 민간기구가 협동으로 자금을 조달함.

11) WHO(2021. 4. 12), "ACT-Accelerator Prioritized Strategy & Budget for 2021," p. 2,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act-a-prioritized-strategy-and-budget-for-2021/>(검색일: 2021. 5. 28).

12) The New York Times(2020. 12. 28), "For COVID-19 vaccines, some are too rich-and too poor," <https://www.nytimes.com/2020/12/28/world/africa/covid-19-vaccines-south-africa.html?auth=link-dismiss-google1tap>(검색일: 2021. 5. 18).

13)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CEPI),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출범한 국제 보건전문기구임.

-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백신 연구 및 개발 촉진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음.¹⁴⁾
- CEPI는 세계백신면역연합¹⁵⁾(이하 GAVI)과 함께 WHO의 ACT-A의 핵심인 COVAX를 설립했으며, 제약 회사 및 연구소와 개별 협약을 맺음(표 1 참고).
- CEPI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생산 단계에 대한 관여 확대 △CEPI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향상 △자금 이용내역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함.¹⁶⁾

표 1. CEPI가 맺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약

협약 대상	내용
AstraZeneca	백신 공급
Biological E Ltd	제조 확장
Clover Biopharmaceuticals	백신 개발 제조 확장 백신 공급
CureVac	백신 개발 제조 확장 백신 공급
Dynavax	제조 확장 백신 보조제 공급
Inovlo	백신 개발
Institut Pasteur/Themis/ University of Pittsburgh ¹⁾	백신 개발
Moderna	백신 개발
Novavax	백신 개발 제조 확장 백신 공급
SK bioscience	백신 개발 제조 확장 백신 공급
Univ. Hong Kong	백신 개발
Univ. Queensland + CSL ²⁾	백신 개발 제조 확장 백신 공급
VBI Vaccines Inc	백신 개발 제조 확장 제조 공급

주: 1) 2021년 1월 25일자로 백신 개발 중지.

2) 2020년 12월 11일자로 백신 개발 중지.

자료: CEPI(2021. 3. 18), "Enabling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p. 10, <https://cepi.net/wp-content/uploads/2020/12/Enabling-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v4-18Mar2021.pdf>/(검색일: 2021. 5. 28).

14) CEPI(2021. 3. 10), "2022-2026 Strategy," https://cepi.net/wp-content/uploads/2021/03/CEPI-2.0_Strategy-2022-26-Mar21.pdf/(검색일: 2021. 5. 28).

15)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Gavi), 백신 접종 및 보급을 통한 대개도국 보건·의료 지원기구임.

16) CEPI(2021. 3. 4), "Mid-term review and COVID-19 response review: combined report," <https://cepi.net/wp-content/uploads/2021/05/CEPI-MTR-CRR-Report-2021.pdf>/(검색일: 2021. 5. 28).

라. 세계은행

- 2016년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전염병 긴급자금 지원기구(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이하 PEF)’를 신설하겠다고 밝힘.
-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시 신속하게 재원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빈국에 신속히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PEF 재원은 주요국의 공여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재난채권 발행을 통해 제공된 보험으로 구성됨.
- 일본, 독일, 호주의 기여와 민간투자자들의 지원으로 마련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세계은행, WHO, UNICEF, WFP 등의 국제기구이며, 기금 사용의 대상은 저소득국으로 한정됨.
- 이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혁신적인 시도였으나, 자금 조달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분화되어 실제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힘들다는 비판을 받음.
 -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으로 2,200여 명이 사망했으나, ‘다른 국가에서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채권이 발동되지 않음(표 2 참고).
 - 2020년 3월 31일에 코로나19로 인한 채권 발동 기준이 성립되어, 약 1억 6,000만 달러의 기금을 64개 저소득 국가에 지원했으며, 아직 갹신되지는 않았음.
- 한편 채권 구매자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채권 활성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¹⁷⁾

표 2. 전염병 채권 기금의 발동 기준

- 전염병 발생이 250건 이상 보고
- IBRD(국제개발부흥은행) 혹은 IDA(국제개발협회) 회원국의 사망자가 250명 이상
- 전염병이 발생한 지 12주 경과
- 전염병 총 발생 건수의 20% 이상이 확진되어야 함.
- 사망자가 그 외 국가에서 국가당 20명 이상
- IBRD 혹은 IDA 회원국의 확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확인 필요)

자료: 세계은행(2020. 4. 27), “Fact Sheet: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검색일: 2021. 6. 2) 토대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국제 보건위기 발생 시 G20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다자기구 개혁 및 활동 지원을 선도해왔으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후 국제 보건협력이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는 감염병 대응체계의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위한 다자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17) Bloomberg(2020. 12. 10), “How pandemic bonds became the world’s most controversial investment,” <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0-12-09/covid-19-finance-how-the-world-bank-s-pandemic-bonds-became-controversial/>(검색일: 2021. 5. 28).

- 개도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자기구를 통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으나, 발병자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물량임.
- 최근 COVAX는 2021년에서 2022년 초까지 200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마련을 위해 저소득국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지원하는 COVAX AMC(이하 AMC)¹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함.¹⁹⁾
 - COVAX AMC는 2021년 접종을 위해 130억 도즈 분량을 확보하였으나,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30% 이상이 접종받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

■ AMC를 통한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국가간의 양자 계약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COVAX는 세계은행 등 다자협력 개발은행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보다 검증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백신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²⁰⁾
- 코로나19 백신의 균형 있는 공급은 집단면역 형성의 기반이며, AMC는 다자협의체로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백신의 균등한 배분을 가능하게 함.²¹⁾

■ 우리나라의 AMC 자금 지원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국제 보건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AMC 자금 지원이 필요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가 이행하기로 한 AMC 기여금은 약 1,000만 달러로(한화 약 110억 원), 전체 기여금²²⁾의 0.15%에 불과하며(표 3 참고), 뉴질랜드,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비슷한 수준임.²³⁾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따른 국제 보건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가 요구됨. **KIEP**

18) COVAX Advance Market Commitment(이하 AMC), 백신 구매가 힘든 92개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국의 공여자금으로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선구매공약 메커니즘으로, COVAX 체계하에 있으나 COVAX Facility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됨.

19) WHO(2021. 5. 27), "COVAX Joint Statement: Call to action to equip COVAX to deliver 2 billion doses in 2021," <https://www.who.int/news/item/27-05-2021-covax-joint-statement-call-to-action-to-equip-covax-to-deliver-2-billion-doses-in-2021/>(검색일: 2021. 5. 31).

20) COVAX(2020), Briefing Note: Additional information on cost sharing for COVAX AMC participants, p. 3(검색일: 2021. 5. 31).

21) The New York Times(2020), "How much herd immunity is enough?" <https://www.nytimes.com/2020/12/24/health/herd-immunity-covid-coronavirus.html/>(검색일: 2021. 5. 31).

2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함.

23)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엔분담금(유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 규모는 전체 회원국에서 2.2%를 차지함(e-나라지표, 외교부 UN사무국).

표 3. 국가별 AMC 지원금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율
미국	2500.0	37.674
독일	970.7	14.628
영국	735.2	11.07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476.7	7.184
이탈리아	457.0	6.887
스웨덴	281.1	4.236
일본	200.0	3.014
캐나다	199.2	3.002
사우디아라비아	153.0	2.306
노르웨이	140.7	2.120
프랑스	118.0	1.778
네덜란드	82.9	1.249
호주	60.8	0.916
스페인	59.0	0.889
스위스	22.5	0.339
덴마크	15.9	0.240
뉴질랜드	12.2	0.184
한국	10.0	0.151
쿠웨이트	10.0	0.151
카타르	10.0	0.151
기타	121.0	1.823
총합	6635.9	100.00

주: 1) 2021년 5월 21일 기준.

2) 36개국 30개 기관(기업, 재단, 민간단체 등)의 총 기여금은 약 700억 달러.

3)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16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팀(Team Europe)'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기금을 지원하며, 그 금액은 총 23억 6,000만 달러, 전체 국가 기여금의 35.6%임.

4) '기타'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16개국 포함임.

자료: GAVI(2021), <https://www.gavi.org/sites/default/files/covid/covax/COVAX-AMC-Donors-Table.pdf>
/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1. 5. 31).